
청소년 비행 유형별(非行類型別) 관련요인 분석

남 정 자*

본 연구는 비행(非行)에 관한 사회학적 이론과 심리학적 이론을 고찰한 후 두 이론을 통합한 사회·심리적 통합모델을 제시하고 한국 청소년 비행의 유형별로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청소년 비행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실증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 본 연구에서 분류한 비행 유형은 한국 청소년 비행에 대한 다양한 설명과 이해를 하는 데 매우 유효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사회학과 심리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행에 관한 이론들을 대부분 지지하고 있었다. 다만 긴장 이론과 자아존중 이론은 우리나라 청소년 비행과는 다소 낮은 관련성을 보여주어 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상정한 사회학과 심리학 이론의 통합적 접근은 한국 청소년 비행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데 매우 유용하였다. 즉 본 연구의 결과, 사회학적 변인에 심리학적 변인이 첨가됨으로써 비행의 예측력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심리학적 변인은 사회학적 변인에 비해 비행 유형별로 보다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어 비행 유형별 대책수립을 위해서는 특히 유용한 지표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결과는 비행 유형에 따라 원인적 요소들이 다르게 작용하고 있는 점을 분명히 보여 주었다. 따라서 향후 청소년 비행에 관한 예방대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 비행 유형별 접근의 필요성과 특정 집단별 특수한 접근방법을 암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활용가치가 크다고 보여진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조적 요인뿐만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 대한 처방이 요구되며 보다 실효성 있는 비행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비행 유형별, 성별, 인문·실업계열별로 다르게 접근할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궁극적으로 비행 현상은 사회구조적 현상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 측면과 연관되기 때문에 비행의 심리적 요인을 간과할 수 없는 점이 본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I. 서론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은 전통적으로 크게 두 가지 접근방법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하나는 비행을 개인의 심리적 요인과 성격구조에서 찾고자 하는 심리학적 접근법이고 또 하나는 비행을 사회구조적 요인으로부터 찾고자 하는 사회학적 접근법이다(Taylor et al., 1973). 비행의 원인에 관한 전통적 사회학의 관점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간의 괴리에 기인한 심리적 긴장을 강조하는 긴장 이론과 사회 통제력의 약화를 초점으로 이론을 제기한 통제 이론 및 다양한 사회화 과정의 결과로 보는 사회학습 이론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심리학자들도 비행의 원인에 관한 각종 이론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이론을 들면 성격 이론, 심리적 스트레스 이론, 심리적 발달 이론과 자아존중감 이론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비행에 관한 이러한 여러 이론 또는 그에 대한 실증적 검증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개별적 이론에 의해 모든 비행의 유형을 설명하기에는 한계성이 있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비행 행위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환경과 힘을 배경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비행의 유형에 따라 어떤 비행 행동은 단일 이론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을지 모르나 모든 비행이 똑같은 이론에 의해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들어 사회학적 이론들을 통합하기 위한 시도가 활발히 진행된 결과 사회학적 통합 이론이 제기되었다. 반면에 사회학자들에 의해 심리학적 요인을 사회학적 연구에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개인의 심리적 요소의 개념에 대한 애매모호함 때문에 경험적 연구에서 널리 도입

되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그러나 비행에 관한 사회학과 심리학의 서로 다른 관점들은 서로 다른 이념적 해결책을 제시하기 때문에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 이론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행에 관한 사회·심리학의 각종 이론을 합성하여 통합적 모델을 제시하고 비행 유형별로 그 모델에 의해 한국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1. 비행에 관한 사회학적 이론

비행에 관한 전통적 사회학적 관점은 우선 사회해체 이론(social disorganization)과 사회학습 이론으로 양분할 수 있다. 사회해체 이론은 다시 문화적 목표(cultural goals)와 제도화된 수단(institutional means)간의 괴리에 기인한 심리적 긴장을 강조하는 Merton의 긴장 이론(strain model)과 사회통제력의 약화를 초점으로 Thrasher, Shaw 및 McKay 등이 제기한 통제 이론으로 분류된다(Merton, 1957 ; Thrasher, 1963 ; Shaw et al., 1942).

우선, 긴장 모델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간의 괴리에 착안한 이론이다. 즉 사회적·문화적 목표를 수용하면서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규범에 동조할 것이나, 문화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수단에 접근할 구조적 제약이 많은 계층은 목표와 수단간의 괴리로 인한 심리적 긴장 및 소외감이 누적되어 규범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문화적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혹은 공유 가치를 전제한 것이며 다른 한편에서 볼 때,

불평등한 기회구조. 제약을 많이 받는 하위계층은 좌절수준이 높으므로 비행률도 높다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반면에 사회통제 이론가들은 긴장이란 비교적 모든 사람에게 일정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을 하면서 좌절된 욕구가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압력으로 작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통제를 동시에 약화시키지 않는 한 비행의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회적인 통제, 즉 청소년의 가정과의 유대, 학교와의 유대 또는 사회적 유대에 있다고 주장한다(한준상, 1989). 한편 사회학습 이론에 의하면 비행은 청소년 동료 그룹 안에서 직접적으로 학습되어진 사회화의 결과이다(Akers, 1969 ; Conger, 1976 ; pp. 17~40). 사회학습 이론은 동기나 사회화를 간접적인 요인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이론에선 순응이나 일탈의 생태적 경향이 있다고 보지도 않으며, 이 두 가지 행동은 차별적인 사회적 보상과 처벌을 통한 다양한 과정의 결과라고 가정한다. 따라서 순응적 혹은 일탈적 행동의 시작과 유지는 그 행동의 결과로 예측되는 보상, 또는 처벌에 의존하고 이런 보상과 처벌에 대한 기대는 과거의 관찰과 경험을 통해 습득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순응적이나, 일탈적 행동이나의 결정은 차별적인 사회적 보상의 결과로 간주된다(Conger, 1980 : pp. 131~32).

최근 들어 비행의 원인에 관한 통합 이론이 제시되고 있다. 이 이론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제기된 (1)긴장 (2)인습적 연대 (3)비행 연대 (4)비행 행위의 4가지 변수들을 모두 포함시킨 통합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통합 모형에서 제기하고 있는 가설은 긴장이나 인습적 연대의 비행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은 상당히

낮으며 이들 변수는 비행과의 연대에 의해 간접적으로 증대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합 모델의 가설은 많은 실증적 분석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

2. 비행에 관한 심리학적 이론

비행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와 이론화 작업이 사회학자들에 의해 실시되었으나 심리학자들도 비행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한 각종 이론들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심리학적 접근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Eysenck의 성격 이론(personality theory)이다. Eysenck의 연구는 성격(personality)과 범죄간의 관련성에 관한 경험적 연구의 가장 대표적인 연구로 들 수 있다(Eysenck, 1964). 이 이론에 의하면 범죄자와 비행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외향성(extraversion), 신경쇠약증(neuroticism), 정신신경증(psychotism)이 높은 경향이 있다. 즉 외향성이 높은 경우는 낮은 경우보다 덜 사회화되며 따라서 더욱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신경쇠약증에 있는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더 자주 반사회적 행동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신경쇠약증이 충동적 습관으로서 작용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높은 정신신경증 치수를 지닌 자는 타인에 대해 민감성, 죄의식, 동정심을 덜 느끼는 경향이 있으므로 정신신경증이 낮은 사람보다 더 반사회적 행동에 가담하는 경향이 높다.

Eysenck의 가설은 그 후 Allsop과 Feldman에 의해 재증명된 바 있으며 Shapland 등의 연구에서도 외향성 치수가 비행(특히 여성에서)과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있다(Allsop et al., 1975 : pp. 66~68).

둘째 이론으로 심리적 스트레스 이론(psych-

chological stress theory)을 들 수 있다. 심리적 스트레스 이론에서는 인간은 자신의 개인적 또는 심리적인 문제로부터 도피하려는 욕구에 의해 약물 남용을 하는 등 비행을 행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보면, 약물 남용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심리적 스트레스(psychological distress)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Steffenhagen et al., 1972 : pp. 129~37 ; Mellinger et al., 1975 ; pp. 301~309). 그러나 심리적 스트레스 이론에서는 약물남용 등의 비행을 행하는 사람을 정신질환이 있거나 정신적 결함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약물남용은 인간이 그가 처하고 있는 두려움, 공포, 권태 또는 우울증으로부터 생리적 또는 오락적 도피를 찾기 위한 일종의 극복 반응으로 보고 있다.

셋째, Warren은 심리적 발달 이론을 통해 주어진 환경에의 심리적 적응능력의 결여가 비행을 가져온다고 설명한다. 즉 사회환경과의 관계에 있어 심리적 적응능력의 결여는 (1)분노(anger)와 공격(aggression)으로 나타나거나 (2)수동적인 적응으로 나타난다. 전자는 비사회성 공격형(asocial aggressive)이라고 부르며 후자는 비사회성 수동형(asocial passive)이라 부른다(Warren, 1971 ; pp. 239~58). 심리적 적응능력의 부족으로 이웃과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순간적 요구나 감정에 따라 행동하며 물리적 제제가 있을 때까지 충동적 행동을 계속한다. 자신을 억제하는 힘이 약하고 자신을 미래의 기회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화하지 못한다. 또한 불안이나 걱정이 타인과의 교류를 저해하고 그곳으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노력이 신경질적, 반사회적 행동으로

유발하거나 자신들의 정서 불안에 영향을 주는 타인에 대해 직접적 공격을 가한다(Quay, 1966 : pp. 450~57).

끝으로 자아 존중감(self esteem) 이론이다. 자아 존중과 비행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Fitts와 Hammer에 의해서 실시된 바 있다. 이들은 60여 종의 관련 연구를 고찰한 결과 비행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이 정상 청소년보다 낮은 것을 발견하였다(Fitts, et al., 1969) Hewitt의 연구도 자아 존중감과 비행간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규명하였는데, Hewitt은 자아 존중감이 높을수록 사회 구성원과의 인습적인 유대가 강해짐으로써 비행이 억제된다고 설명하였다(Hewitt, 1970). 비행에 있어 자아 존중감의 역할을 가장 구체적으로 검토한 Kaplan은 청소년은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 그들이 요구하는 기준에 달하지 못해 계속 실패를 경험함으로써 축적된 부정적 감정은 그러한 기준이 무시되고 비행이 찬미되는 다른 동료 그룹의 친구가 되는 길을 찾게 된다. 그리하여 비행 가치(delinquent values)를 받아들이고 비행 행위에 가담을 함으로써 그들은 다른 환경에서 거부되었던 지위를 얻게 되며 결과적으로 자아 존중감이 회복된다는 것이다. 즉 부정적인 사회경험(가정, 학교 등)이 개인의 자아 존중감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낮은 자아 존중감은 비행과 관련되며, 비행을 통해 자아 존중감이 낮은 청소년 집단에 속함으로써 그 집단 내에서 자신의 자아 존중감을 높이게 되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Kaplan, 1975). Rosenberg와 Rosenberg의 종단적 연구에서도 자아 존중감이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적 결정인자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즉 자아 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은 그를 인정치 않는 사회에 반격을 가하기 위해, 그리고 잃었던 자아

존중감을 회복하기 위해 비행에 가담한다는 것이다(Rosenberg, 1978 : pp. 279~91).

3. 한국 청소년 비행의 통합 모형 제시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사회학적 이론들을 통합하기 위한 시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사회학적 통합 이론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반면에 사회학자들에 의해 심리학적 요소를 사회학적 연구에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개인의 심리적 요소의 개념에 대한 애매모호함 때문에 경험적 연구에서 널리 도입되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사회학자들은 비행을 이해하기 위해 내적 설명변수에 심리학적 변수를 도입해 왔으나 고려된 심리적 변수는 다만 자아 개념(self concept)에 국한하였다. 그러나 자아 개념(self concept)은 인간의 정신심리적 측면에서 볼 때는 두 가지 측면 중의 하나에 속하는 것이다. 정신 심리를 넓은 의미에서 개념적으로 볼 때 두 가지 독립된 영역으로 구성된다(Kellam, et al : 1976). 하나는 소위 심리적 건강(psychological well-being)을 개인적·내면적으로 본 개념으로서 자가 보고나 의사의 진단에 의한 부정적 측면의 정신건강이다. 심리적 건강의 부정적 증상으로는 불안(anxiety), 우울(depression), 분노, 공격(anger/aggression), 괴벽(bizarre-peculiar), 망상(bizarre paranoia), 강박증(obsession/compulsions) 등이 포함된다. 또 하나의 정신심리의 개념은 개인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부터 형성된다. 이 개념은 Clauser의 긍정적 정신건강(positive mental health)의 개념과도 유사하며 Peterson 등이 채용한 자아 존중감(self-esteem)과 비슷하다(Clauser, 1968).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비행에 관여하는 심리적 요인을

정신건강의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사회학적 요인과 심리학적 요인을 합성한 사회·심리학적 통합 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왜냐 하면 비행에 관한 사회학과 심리학의 서로 다른 관점들은 서로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기 때문에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 이론을 통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행의 원인에 관한 각종 이론들을 합성하여 통합 모형을 작성하였다. 모델에 포함시킨 변인으로는 이미 사회학적 통합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긴장, 인습적 유대, 비행유대 변인을 선정하였고 심리학적 변인 중에서는 심리적 갈등 변인(공격, 불안, 우울성향)과 자아 존중감 변인을 선정하였다. 심리학적 변인 중 심리적 갈등 변인과 자아 존중감 변인을 선정한 이유는 인간의 정신심리를 크게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대별한 Peterson 등의 견해를 취하였기 때문이다. 다중회귀 분석을 위한 통합 모형은 다음 식으로 표시된다.

비행(Delinquency)

$$=F(\text{Strain, C bond, D bond, Psycol, Self})$$

상기 식에서 Delinquency는 비행 행동, Strain은 긴장, C bond는 인습적 유대, D bond는 비행유대, Psycol은 심리적 갈등, Self는 자아 존중감을 나타낸다.

III.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및 조사 도구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충청북도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1989년 5월 1일 현재 총 422개 교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 총 279,636명을 모 집단(母集

團)으로 하여 표본으로 추출한 고등학생 1,412명이다. 그 중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이 698명, 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이 415명, 군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이 299명이며 계열별로는 인문계열 학생이 1,042명, 실업계열 학생이 370명이었다.

이 연구에 사용한 도구는 자기식 질문지인 ‘한국 청소년 비행에 관한 조사’ 질문지이다. 질문지 구성을 위한 조사영역 및 변인들은 앞에서 기술한 사회학적 및 심리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추출하였고 문항 작성을 위해서는 국내외의 청소년 비행과 약물남용에 관한 여러 유사한 질문지를 참고하였으며 2회의 예비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참고하여 관련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사회적 배경은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가. 종속변수(비행)의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종속변수는 44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 비행 문항이다. 이들 비행에 관한 항목의 선정은 Gold의 자가보고에 의한 비행 항목 26항목과 Axenroth의 12항목 및 민병근의 49항목을 참고로 하여 사소한 비행에서 중한 비행에 이르는 80문항의 비행 항목을 작성한 후 현직 고등학교 교사 2인으로부터 문항에 대한 검토를 받아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50개 문항으로 수정한 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번의 사전 조사를 거쳐 결정하였다(Gold, 1966; Axenroth, 1983; 민병근, 1978).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값은 0.9407로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비행 항목에 대한 응답 형식은 (1)전혀 한 적이 없다. (2)한두 번 했다. (3)가끔씩 했다. (4)매우 자주 했다의 4가지 항에 표시토록 했으며 순서대로 1점

부터 4점의 점수를 부여하여 척도화하였다.

나. 독립변수의 정의 및 측정

1) 사회계층

본 연구에서 사회계층은 본인이 평가하는 생활수준, 집 소유 상태, 아버지 교육수준, 어머니 교육수준, 아버지 직업, 어머니 직업의 6가지 변수에 의해 측정하였다.

(1) 생활수준은 5등급으로 측정하였는데, 아주 잘 산다를 5점, 잘 사는 편이다를 4점, 보통 먹고 살 정도이다를 3점, 약간 쪼들린다를 2점, 아주 쪼들린다에 1점을 부여하였다.

(2) 집 소유 상태는 자기 집일 경우는 2점, 전세, 월세 및 기타의 경우에는 1점을 부여하였다.

(3) 교육정도는 무학은 1점, 국졸 2점, 중졸 3점, 고졸 4점, 대학원 이상은 6점을 부여하였다.

(4) 직업은 무직·가사(家事)·가정부·행상·노무자에는 1점을, 이미용사·운전사·기능공·목수·음식점·여관 경영·택시 운전사·숙련 기술자·소작농에는 2점을, 교사·기자·정부기관의 계장 이하 공무원·회사 사무직 직원·은행 평사원·군인·자작농에 3점을, 의사·변호사·판사·검사·교수·대기업 사장·장차관·대사·영사·군 장성에 4점을 부여하였다.

2) 긴장(strain)

긴장은 여망(aspiration)과 기대(expectation)간의 괴리로 정의된다. 긴장을 측정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이 (1)원하는 교육수준에서 실제 가능한 교육수준을 뺀 격차와 (2)원하는 직업의 수준에서 실제 가능한 직업수준을 뺀 격차이다. 본 연구에서도 교육적 격차를 산출하기 위하여 실제 교육수준과 원하는 교육수준을 무학에서부터 대학원 졸업까지 6단계의 척도로 나눈 후 이들 수준간의 격차를 산출하여 긴장의 지표로 삼았다.

Table 1. Percent Distribution of Sociodemographic Variables

조사 대상자의 사회경제적 배경

Characteristics	Total	Male	Female
Total (N)	1.412	742	668
(%)	100.0	100.0	100.0
<u>Father's Education</u>			
No Schooling	4.1	4.9	3.1
Primary School Graduate	22.6	24.0	21.0
Middle School Graduate	19.4	19.8	18.9
High School Graduate	32.5	32.9	32.0
College Graduate	18.5	15.6	21.8
Above College	3.0	2.8	3.2
<u>Father's Occupation</u>			
Unemployed	3.4	3.8	3.0
Laborer	2.9	.0	1.9
Semi-skilled, Craftsman, Foreman	3.8	15.0	12.5
Skilled Worker, Store Owner, Driver	23.1	21.7	24.6
Teacher, Executive, Clerk, Architect	20.1	19.6	20.7
Doctor, Lawyer, Manager, Professor	9.7	8.7	10.9
Large business Owner	1.0	0.8	1.2
Large Farm Owner	1.0	1.3	0.8
Small Farm Owner	24.9	25.5	24.3
<u>Socioeconomic Status</u>			
Wealthy	0.4	0.5	0.1
Somewhat above average	15.2	12.0	18.8
Average	71.3	73.5	68.9
Somewhat below average	11.0	11.3	10.8
Poverty level	21	2.7	1.3

3) 인습적 유대

Hirschi는 개인의 사회에 대한 유대를 애착, 수용, 참여, 신념 등 4가지 차원으로 설명하면서 이러한 유대가 무너질 경우 비행을 저지른다고 주장하였다(Hirschi, 1969). 그는 그 대상을 부모, 학교, 친구로 삼고 있다. 특히 Hirschi는 부모의 자식에 대한 애착을 중요하게 고려

하였다. 본 연구에서 인습적 유대는 가정과의 인습적 유대와 학교와의 유대로 측정하였으며 가정과의 인습적 유대는 부모·자녀 관계와, 가족원의 가정 만족도로 측정하였다. 학교와의 유대는 학교에 대한 애착, 학교 생활에의 참여, 그리고 학교 생활에의 수용으로 측정하였다. 즉 학교에 대한 애착(attachment)을 측정하기

위해 학교에 대한 태도와 교사와의 관계를 포함시켰고 학교 생활에의 참여(involvement)를 측정하기 위해 성적 및 학교 생활에 대한 자기평가 또는 숙제의 성실도를 포함시켰으며 학교 생활에의 수용(commitment)을 측정하는 변수로 성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학교 생활에의 만족감에 대한 13개의 항목을 고려하였다.

4) 비행과의 유대(delinquent bond)

비행 연대는 비행 친구와의 관계와 비행에 관한 태도로 정의되는데, 비행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는 비행과의 접촉 및 비행에 관한 태도의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비행과의 접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친한 친구 중 비행을 행하는 친구가 얼마나 되는가로, 본 연구에서는 이에 관한 질문 항목으로서 다음의 3가지 항목을 포함시켰다.

(1) 친한 친구 중 학교에서 처벌받거나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친구가 있는가?

(2) 친한 친구가 법을 어기거나 나쁜 짓을 한 적이 있는가?

(3) 친한 친구 중 학교에서 인정하지 않는 모임이나 불량 서클에 가입한 친구들이 있는가?

한편, 비행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친한 친구들은 법이나 규칙을 어기는 것을 반대합니까?”라는 질문을 포함시켰다.

5) 심리적 갈등(공격 성향, 불안 성향, 우울 성향)

심리적 갈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Peterson과 Kellam(1977)이 개발한 15개 항목 [공격 성향(5항목), 불안 성향(5항목), 우울 성향(5항목)]을 사전 조사를 거쳐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한 후 그대로 사용하였다(Peterson, 1966 ; Kellam, 1977). 공격 성향, 불안 성향, 우울 성향의 Cronbach α 값은 각각 .66, .72, .76

으로 내적 일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6) 자아 존중감

자아 존중감은 Kaplan이 개발한 7개 항목의 자아 존중감 항목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①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α 값은 0.78로서 내적 일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 존중감의 각 문항에 대한 척도도 심리적 성향과 마찬가지로 5점 척도에 의한 점수를 부여하였다.

3. 분석 방법

청소년 비행의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요인분석 방법을 실시하였고 비행 유형별 사회·심리적 요인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중다회귀분석 방법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한국 청소년 비행의 유형 분석

본 연구에서는 비행을 분류하기 위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방법으로는 varimax 회전법을 실시하였다. 각 집단별 요인의 선택은 인자 부하량(factor load)이 0.50 또는 그 이상인 것을 선택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비행 항목은 고유치(Eigen Value)가 1 이상으로 나타난 7개의 소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요인 1로 분류된 비행은 늦은 귀가, 컨닝, 주먹 싸움, 흡연, 음주, 돈내기 놀음, 음락서적 읽기, 음란비디오 보기, 미성년자 관람불가 영화 관람, 술집 출입의 10개 항목으로서 변량은 31.6%였다. 이들 비행은 성인들의 경우라면 범죄로 분류되지 않으나 청소년이기 때문에 비행으로 간주되므로 지위 비행(地位非行)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2의 비행으로는 타인에 대한 시비,

Table 2. Result of Factor Analysis of Delinquent behaviors

요인 분석 결과

Delinquent behaviors	status	violent	sexual	run away	authority	drug	theft	communality
무단결석	.164	.060	.167	.742	.161	.116	.170	.682
가출	.197	.162	.075	.696	.154	.078	.025	.602
늦은 귀가	.517	.184	.124	.249	.036	-.029	.070	.476
컨닝	.586	.103	.014	.069	.041	-.002	.284	.441
등록금 유용	.108	.002	.229	.094	.719	.016	.099	.601
벌	.455	-.021	-.039	-.157	.038	.118	.141	.373
근신, 경고	.156	.244	.199	.379	.609	.072	-.046	.646
정학, 퇴학	.004	.317	-.081	-.336	.599	.084	.106	.598
부모와 논쟁	.090	.008	.088	.132	.003	.026	-.024	.608
아버지 구타	.015	.113	.141	-.049	.732	.224	.089	.632
어머니 구타	-.034	.065	.005	.039	.502	.478	.041	.537
학교로 부모 호출	.211	.195	.124	.629	.132	.242	.116	.598
물건 훔침	.488	.147	.114	.055	.092	.015	.447	.534
남의 물건 사용	.348	.257	.048	-.050	.118	.015	.320	.436
공공기물 파괴	.388	.358	.026	-.016	.152	.109	.241	.497
가로등 파괴	.325	.411	.216	.012	.198	.066	.300	.459
타인 시비	.385	.512	.299	.282	.046	.009	.179	.623
금품 갈취	.238	.661	.179	.174	.109	.148	.070	.603
10,000원 이상 물건 훔침	.166	.082	.117	.251	.107	.028	.625	.517
주먹 싸움	.632	.292	.216	.218	.051	.027	.148	.606
집단 패싸움	.309	.495	.419	.222	.107	.166	.047	.608
타인 구타	.239	.538	.257	.127	.129	.215	.072	.517
남의 물건 훔침	.143	.312	.140	.029	.097	-.039	.590	.503
아동 구타	.266	.538	.072	.180	.115	.035	.279	.521
훔기 소지	.324	.554	.250	.064	.112	.227	.002	.545
교사 구타	.031	-.108	.181	.083	.530	.369	.501	.627
흡연	.709	.186	.193	.309	.011	.046	.056	.678
음주	.689	.208	.200	.218	.027	-.004	-.027	.618
본드·신나 사용	.106	.182	.206	.148	.032	.630	-.079	.525
환각제 사용	.005	.235	.047	.116	.054	.732	-.044	.613
마리화나 흡연	.095	-.105	.128	.264	.339	.452	.267	.516
히로뽕 사용	.051	.010	.095	.044	.285	.623	.275	.565
돈내기 놀음	.744	.212	.091	.028	.036	.045	.152	.636
음란서적 읽기	.775	.068	.100	.009	.093	.051	.072	.643
음란비디오 시청	.738	.088	.241	.071	.140	.056	-.008	.642
관람불가 영화 관람	.754	.135	.171	.044	.084	.067	-.018	.629
술집 출입	.647	.336	.336	.197	.048	.067	-.018	.700
디스코 클럽 출입	.408	.320	.458	.415	.011	.073	-.006	.657
여성 회롱	.411	.299	.505	.193	.101	.045	.189	.600
남녀 혼성 캠핑	.190	.141	.659	.039	.098	.035	.073	.574
남녀 혼숙	.251	.162	.705	.210	.189	.046	.081	.693
이성과 성(性) 관계	.175	.178	.638	.233	.160	.174	.147	.605
사창가 출입	.171	.147	.567	-.047	.127	.218	.135	.468
경찰서 잡혀감	.271	.370	.263	.390	.09	.214	.209	.531
Eigen value	13.89	3.49	1.71	1.47	1.26	1.26	1.14	
PCT of VAR.	31.6	8.0	3.9	3.4	2.9	2.8	2.6	

금품 갈취, 타인 구타, 아동 구타, 흥기 소지의 5개 요인이 분류되었으며 이들은 모두 폭력성 행위이므로 폭력비행(暴力非行)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여성 희롱, 혼성 캠핑, 남녀 혼숙, 이성과의 성(性) 관계, 사창가 출입 등 쾌락성 비행이므로 쾌락 비행(快樂非行)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4는 무단 결석, 가출, 학교로 부모 호출로서 가출 비행(家出非行)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5는 등록금 유용, 근신·경고 처분, 정학·퇴학, 부모 구타, 선생님 구타로서 반항성 행위로 간주되므로 반항 비행(反抗非行)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6은 본드·신나 사용, 환각제 사용, 마리화나 흡연, 희로뽕 사용과 같은 약물남용 비행들로 분류되어 있어 약물 비행(藥物非行)이라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인 7은 10,000원 이상 물건 훔침, 상점 물건 훔침 등 재산에 대한 유해로 간주되어 재산 비행(財産非行)이라 명명하였다.

비행 연구(非行研究)에선 비행을 어떻게 정의하고 분류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비행의 유형에 따라 원인적 요소가 다르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 의해 분류된 한국 청소년 비행의 7개 유형인 지위 비행, 폭력 비행, 쾌락 비행, 가출 비행, 반항 비행, 약물·비행, 재산 비행은 향후 우리나라 청소년 비행의 연구와 분류에 있어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비행 유형별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적 요인

가. 지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결과 지위 비행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은 성(sex)으로 나타났다($\beta = .50$). 그 다음 요인으로는 비행 유대(非

行紐帶), 인습적 유대, 심리적 갈등, 학교 계열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이들 5개 변인의 지위 비행에 대한 설명력은 약 57%로서 매우 높았다.

성별로 지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남학생의 지위 비행은 비행 유대, 인습적 유대, 심리적 갈등, 긴장이 증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외에도 학교 계열, 아버지 직업, 거주 지역이 다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이들 7개 요인이 약 41%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여학생은 비행 유대, 인습적 유대, 심리적 갈등, 학교 계열의 4개 요인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나 설명력은 남학생보다 다소 떨어진 35%였다. 이 분석 결과에 의한 남녀별 비행 요인의 차이를 볼 때 남자의 경우 비행을 촉진시키는 비행 유대의 역할은 여자보다 상당히 높은 반면 비행을 억제시키는 요인인 인습적 유대는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은 왜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더 비행에 가담하고 있는가 하는 현실적인 물음에 대한 해답을 암시해주고 있다. 이 결과에 의하면, 남학생의 경우 비행 유대를 억제시키고 인습적 유대를 강화시킨다면 지위 비행이 상당히 감소될 수 있음을 암시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학교 계열별로 지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인문계 고등학교의 지위 비행은 성, 비행 유대, 인습적 유대, 심리적 갈등, 긴장, 집 소유 유무, 아버지 직업, 거주 지역의 8개 변인이 56%를 설명하고 있는데 반해 실업계 고등학생의 경우는 성, 비행 유대, 인습적 유대, 심리적 갈등의 4개 변인이 58%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지위 비행은 자기 집이 있고 아버지 직업 수준이 높으며 거주

지역이 도시인 경우에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는 데 있다. 즉 인문계 고등학생들은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지위 비행에 더 자주 가담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비행이 사

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계층에서 더욱 빈번하게 발생된다는 많은 연구 결과들과 상반되는 결과이다.<표3 참조>

Table 3. Factors affecting Status Offenses by Gender and School Program

성별, 인문·실업계별 지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Variables	Total		Male		Female		Academic		Vocational	
	β	R ² rank	β	R ² rank	β	R ² rank	β	R ² rank	β	R ² rank
Gender	.503***	1					.528***	1	.473***	2
Delinq. bond	.355***	2	.425***	1	.330***	2	.338***	2	.383***	1
Convent. bond	-.213***	3	-.258***	2	-.321***	1	-.200***	3	-.254***	3
Psych. distress	.143***	4	.169*	3	.182***	3	.152***	4	.135***	4
Strain			.101***	4			.045*	6		
Sch. program	.069*	5	.077*	5	.120**	4				
S. E. S.			.086**	6						
Res. area			.077*	7			.054*	8		
Own house							-.044*	5		
Father's edu							.058*	7		
Working mother										
R ²	.57		.41		.35		.56		.58	

*** P < .001 ** P < .01 * P < .05

나. 폭력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지위 비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sex)이었던 데 비해 폭력 비행에는 비행 유대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beta=.35). 성과 인습적 유대에 이어 심리적 갈등의 영향력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beta=.19). 그 외에도 폭력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학교 계열, 부친 교육수준, 자아 존중감이 포함되었으며 이들 7개 요인의 폭력 비행에 대한 설명력은 약 28%였다.

폭력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성별 차이는 지위 비행에서와 마찬가지로 남학생은 비행 유대의 영향력이 여학생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 반면 여학생은 인습적 유대의 영향이 남학생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폭력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심리적 갈등 변인은

남학생의 경우 비행 유대에 이어 두번 재로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비해 여학생에 있어서는 비행 유대, 인습적 유대, 학교 계열, 거주 지역에 이어 다섯번 재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여학생의 경우는 자아 존중감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남학생에 있어서 자아 존중감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문·실업계별로 폭력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인습적 유대의 비행을 억제하는 역할이 인문계열보다 실업계열에서 상당히 높게 나타난 점이다. 반면에 인문계 고등학생들은 실업계 고등학교에 비해 심리적 갈등과 자아 존중감, 어머니 취업 여부 등의 변인이 폭력 비행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실업계 고등학생의 폭력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습적 유대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인문계 고등학교의 폭력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갈등을 적절

히 해소하며 자아 존중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배려가 요구된다고 하겠다.<표4 참조>

Table 4. Factors affecting Violent Offenses by Gender and School Program

성별, 인문·실업계별 폭력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Variables	Total		Male		Female		Academic		Vocational	
	β	R ² rank	β	R ² rank	β	R ² rank	β	R ² rank	β	R ² rank
Gender	.197***	3					.202***	1	.170***	4
Delinq. bond	.347***	1	.368***	1	.263***	1	.346***	2	.356***	1
Convent. bond	-.514***	2	-.151***	3	-.278***	2	-.144***	3	-.200***	2
Psych. distress	.194***	4	.180*	2	.145***	5	.119***	4	.153***	5
Strain			.087***	4						
Self esteem	.062*	7			.127**	6	.078*	5		
Sch. program	.108***	5	.105**	6	.133***	3				
S. E. S.			.125***	5						
Res. area					-.073*	4			.177*	3
Father's edu	.073**	6					-.57*	6		
Working mother										
R ²	.28		.30		.21		.26		.32	

*** P < .001 ** P < .01 * P < .05

3. 쾌락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체적으로 보면 쾌락 비행에는 비행 유대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인습적 유대의 비행 억제효과도 성(性)에 이어 세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그외에도 심리적 갈등, 학교 계열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이들 5개 변인이 쾌락 비행을 약 20% 정도 설명하고 있었다.

남녀별로 쾌락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 비행 유대와 인습적 유대의 역할은 지위 비행과 폭력 비행에서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쾌락 비행의 원인으로 나타난 요인 중 두드러진 성별 차이는 남학생에서는 심리적 갈등과 긴장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 반면 여학생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쾌락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남녀별로 그 전략을 다르게 하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즉 남·여학생 모두에 있어 쾌락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행 유대를 감소시키기 위해 비행 친구들과의 어울림을 억제시켜야 하며 인습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가정과 학교의 관심 증가가 요구된다. 특히 남자의 경우에는 심리적인 공격성뿐만 아니라 불안, 우울감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어야 하며 긴장을 건전하게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어야 함이 요구된다.

한편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쾌락 비행은 성, 비행 유대, 인습적 유대, 심리적 갈등, 남녀공학 여부, 아버지 교육수준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6개 변인이 쾌락 비행을 22% 설명하고 있는 데 반해 실업계 고등학교는 비행 유대, 인습적 유대, 아버지 교육수준의

3개 변인만이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3개 요인의 설명력은 26%로서 꽤 높은 편이었다. 이와 같은 인문·실업계열별 쾌락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차이를 감안하면 인문·실업계열별로 쾌락 비행에 관한

예방전략에는 다소 다른 접근이 요구된다. 즉 인문계열의 경우는 남학생과 남녀공학 학생에게 더욱 관심을 기울일 것이 요구되고 심리적인 문제에 대한 대처능력도 함께 키워 줄 것이 요구된다.<표5 참조>

Table 5. Factors affecting Sexual Offenses by Gender and School Program

성별, 인문·실업계열별 쾌락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Variables	Total		Male		Female		Academic		Vocational	
	β	R ² rank	β	R ² rank	β	R ² rank	β	R ² rank	β	R ² rank
Gender	.170***	3					.211***	-2		
Delinq. bond	.286***	1	.329***	1	.270***	2	.301***	1	.380***	1
Convent. bond	-.131***	2	-.135***	2	-.279***	1	-.130***	3	-.247***	2
Psych. distress	.105***	4	.122***	3			.092***	4		
Strain			.103***	4						
Sch. program	.069**	5			.079***	3				
Res. area					-.079*	4				
Father's edu							.099**	6	.128**	3
R ²	.20		.20		.21		.22		.36	

*** P < .001 ** P < .1 * P < .05

4. 가출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체 학생의 경우, 가출 비행은 비행 유대, 인습적 유대, 학교 계열, 심리적 갈등, 성과같은 요인들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앞에서 고찰한 지위 비행, 폭력 비행, 쾌락 비행에서 비행 유대가 여학생보다 남학생에서 두드러지게 강하게 나타난 것에 비해 가출 비행에서는 여학생에서 비행 유대의 영향력이 남학생보다 훨씬 강하게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남학생에 있어서는 심리적 성향과 긴장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반해 여학생에게 그것들의 영향력은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점이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다른 비행에서는 의미있는 영향력을 나타내 주지 못하던 친부모 여부가 가출 비행에는 영

향을 미치고 있는 점도 주지할 만한 점이다.

가출 비행에 있어 인문·실업계열별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점은 인문계 학생에서는 심리적 성향이 가출 비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반해 실업계에서는 그렇지 않은 점이며 반면에 실업계에서는 아버지 직업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반해 인문계에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점이다.

이와 같은 남·여 인문·실업계열별 차이는 앞으로 가출 비행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때 고려되어야 할 점이라고 하겠다. 대책의 일환으로는 특히 인문계열의 경우 가출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심리적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표6 참조>

Table 6. Factors affecting Run away from home Offenses by Gender and School Program

성별, 인문·실업계열별 가출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Variables	Total		Male		Female		Academic		Vocational	
	β	R ² rank	β	R ² rank	β	R ² rank	β	R ² rank	β	R ² rank
Gender	.100***	5					.116***	4		
Delinq. bond	.254***	1	.270***	1	.296***	2	.250***	1	.264***	1
Convent. bond	-.181***	2	-.142***	3	-.299***	1	-.158***	2	-.288***	2
Psych. distress	.106***	4	.130***	2	.066*	4	.119***	3		
Strain	.053*	7	.071*	7					.109***	4
Sch. program	.160***	3	.152***	3	.176***	3				
Res. area										
Father's edu	.075**	6	.084*	6					.180*	3
Real parents			.111**	5						
No. of siblings							.061*	5		
R ²	.20		.18		.24		.16		.24	

*** P<.001 ** P<.01 * P<.05

5. 반항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반항 비행에 대한 비행 유대의 설명력은 다른 유형의 비행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특징적으로 인습적 유대와 생활수준의 영향력이 매우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이는 인습적 유대가 약하고 생활수준이 어려운 학생들이 반항 비행을 보다 자주 행하고 있음을 의

미한다. 다만 여학생에 있어서는 생활수준의 영향력이 무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여학생의 인습적 유대의 영향력이 특히 높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생활수준이 낮다 하더라도 인습적 유대의 비행 억제 효과가 큼으로 인해 반항 비행이 예방된 것으로 보여진다.<표7 참조>

Table 7. Factors affecting Authority Offenses by Gender and School Program

성별, 인문·실업계열별 반항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Variables	Total		Male		Female		Academic		Vocational	
	β	R ² rank	β	R ² rank	β	R ² rank	β	R ² rank	β	R ² rank
Gender										
Delinq. bond	.116***	2	.114***	1	.163**	2	.128***	2		
Convent. bond	-.144***	1	-.107***	3	-.299***	1	-.229***	1	.283***	1
Psych. distress	.072***	4							.109*	2
Sch. program	.063*	5			.181***	3				
Res. area	-.125***	3	-.171***	2			-.128***	3	-.119*	3
Father's edu	.060**	6	.094*	4						
Working mother							-.097*	4		
Co-education							.096*	5		
R ²	.08		.06		.13		.06		.13	

*** P<.001 ** P<.01 * P<.05

6. 약물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반항 비행에서와 마찬가지로 약물 비행에서도 독립변인의 비행에 대한 설명력이 5% 미만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비행에서는 성이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반해 약물 비행에 있어서는 성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심리적 갈등의 영향력도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았는데 이와같은 결과는 Ginsberg의 중단적 설계에 의한 연구 결과와는 동일하나 Ausubel과 Louria가 횡단적 연구에 의해 결론내린, 심리적 갈등이 마리화나 복용과 관련성이 있다는 주장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표8 참조>

Table 8. Factors affecting Drug Offenses by Gender and School Program

성별, 인문·실업계열별 약물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Variables	Total		Male		Female		Academic		Vocational	
	β	R ² rank	β	R ² rank	β	R ² rank	β	R ² rank	β	R ² rank
Gender										
Delinq. bond	.170***	1	.200***	1			.181***	1	.634**	1
Convent. bond	-.062*	4			-.091*	2	-.091**	2		
Strain					.080*	3				
Sch. program	.084**	2			.137***	1				
S.E.S.			-.110***	2			-.087**	4		
Father's Occup.	.081**	3	.149***	3			.112***	3		
No. of Siblings							.084**	5		
R ²	.05		.06		.03		.05		.03	

*** P<.001 ** P<.01 * P<.05

7. 재산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재산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른 유형의 비행에서와 같이 비행 유대, 인습적유대, 성, 심리적 갈등 등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보면, 남학생과 인문계 학생에서는 긴장변인이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학생과 인문계 학생 집단에서는 자아 존중감 변인이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생활수준은 여학생을 제외한 전집단에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재산 비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표 9 참조>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비행에 관한 사회학적 이론과 심리학적 이론을 고찰한 후 두 이론을 통합한 사회·심리적 통합 모델을 제시하고 한국 청소년 비행의 유형별로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청소년 비행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실증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주요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요인분석 결과 한국 청소년 비행은 지위 비행, 폭력 비행, 쾌락 비행, 가출 비행, 반항 비행, 약물 비행, 재산 비행의 일곱 가지 형

Table 9. Factors affecting Theft Offenses by Gender and School Program

성별, 인문·실업계열별 재산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Variables	Total		Male		Female		Academic		Vocational	
	β	R ² rank	β	R ² rank	β	R ² rank	β	R ² rank	β	R ² rank
Gender	.131***	3					.135***	2		
Delinq. bond	.171***	1	.166***	1	.126***	2	.153***	3	.208***	1
Convent. bond	.106***	2	-.100***	4	-.163***	1	-.092**	4	-.168**	2
Psych. distress	.164***	4	.164***	3			.200***	1		
Strain			.075**	5			.081**	5		
Self esteem	.071*	6					.096**	6		
School program										
S.E.S.	-.060*	5	-.158***	2					-.159**	3
R ²	.10		.10		.05		.10		.12	

*** P<.001 ** P<.01 * P<.05

태로 분류되었다.

둘째, 지위 비행에는 비행 유대, 인습적 유대, 심리적 갈등 등 이론적 변인들의 영향력도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었으나 성(性)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 매우 주목되는 결과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녀를 비교해 볼 때 남학생에게는 비행 유대의 영향력이 여학생보다 훨씬 크게 작용하고 있는 반면 인습적 유대의 비행 억제효과는 여학생에 비해 훨씬 약하게 작용하고 있는 현상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

셋째, 폭력 비행은 지위 비행에서와 달리 성의 효과보다도 비행 유대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폭력 비행의 원인 중 성별에 따라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있는 변인은 심리적 갈등 변인으로서 심리적 갈등변인은 남학생에 있어서는 비행 유대에 이어 두번 째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여학생의 경우는 다섯번 째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인문·실업계열로 보면, 폭력 비행을 억제하는 인습적 유

대의 역할이 인문계열보다 실업계열에서 상당히 컸다.

넷째, 쾌락 비행에는 비행 유대, 성, 인습적 유대, 심리적 갈등이 고루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쾌락 비행에 있어 성별로 두드러진 차이는 남학생에 있어서는 심리적 갈등과 긴장이 영향을 미치는 데 비해 여학생은 그렇지 않은 점이다. 인문계 학생 중에서는 남녀공학인 경우 쾌락 비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다섯째, 가출 비행에는 비행 유대, 인습적 유대, 심리적 갈등 이외에도 부친 교육수준, 친부모 여부, 형제수 등이 중요한 원인적 요소로 등장했다. 그러나 비행 유대의 영향력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에 심리적 성향과 긴장은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에서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여섯째, 반항 비행에 대한 비행 유대의 설명력은 다른 유형의 비행에 비해 낮은편이었다. 그러나 특징적으로 인습적 유대와 생활수준의 영향력이 매우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일곱째, 약물 비행과 심리적 갈등간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 상반된 주장하고 있는 실정인데 본 연구의 결과는 심리적 갈등과 약물비행과 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재산 비행에서는 비행 유대, 인습적 유대, 심리적 갈등 등의 이론적 변인 이외에도 생활수준이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 본 연구에서 분류한 비행 유형은 한국 청소년 비행에 대한 다양한 설명과 이해를 하는 데 매우 유효했다고 하겠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사회학과 심리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행에 관한 이론들을 대부분 지지하고 있었다. 다만 긴장 이론과 자아존중감 이론은 우리나라 청소년 비행과는 다소 낮은 관련성을 보여주어 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상정한 사회학과 심리학 이론의 통합적 접근은 한국 청소년 비행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데 매우 유용하였다. 즉 본 연구의 결과, 사회학적 변인에 심리학적 변인이 참가됨으로써 비행의 예측력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심리학적 변인은 사회학적 변인에 비해 비행 유형별로 보다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어 비행 유형별 대책수립을 위해서는 특히 유용한 지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비행 유형에 따라 원인적

요소들이 다르게 작용하고 있는 점을 분명히 보여 주었다. 예를 들면 부모와의 동거 여부와 친부모 여부, 형제 수는 가출 비행과는 상당히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밖의 지위, 쾌락, 약물, 재산 비행 등과는 거의 무관하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공격 성향과 우울 성향은 폭력비행을 비롯한 대부분의 비행 유형과 관련성이 높았으나 불안 성향은 가출·반항·재산 비행과만 유의한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특히 성과 계열 학교의 효과를 감안하여 비행 유형별 원인적 요소를 살펴본 점은 비행에 관한 다양한 이해를 가능케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청소년 비행에 관한 예방대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 비행 유형별 접근의 필요성과 특정 집단별 특수한 접근방법을 암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활용가치가 크다고 보여진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조적 요인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 대한 처방이 요구되며 보다 실효성있는 비행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비행 유형별, 성별, 인문·실업계열별로 다르게 접근할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궁극적으로 비행 현상은 사회구조적 현상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 측면과 연관되기 때문에 비행의 심리적 요인을 간과할 수 없는 점이 본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참 고 문 헌

김성이, “청소년 약물 오남용 실태”,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와 예방. 체육부, 1989.
민병근, “청소년 범죄에 관한 정신의학적 고찰” 오늘의 청소년. 제5집 중앙대학교 한

국청소년문제연구소, 1981.
한준상, 청소년 문제와 학교교육.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9.
Akers, R. L.. *Deviant Behavior : A Social Learn-*

- ing Perspective. Belmont, CA : Wadsworth, 1977.
- Cohen, A. K.. & Short, J. F., Jr, "Crime and Juvenile Delinquency", in R. K. Merton and R. Nisbet(eds) *Contemporary Social Problems*, 2nd ed. New York : Harcourt Brace Jovanovich, 1976.
- Conger, R. D.. "Social Control and Social Learning Models of Delinquent Behavior" : A Synthesis, *Criminology*, 14, 1976.
- Fitts, W., & Hammer, W.. *The Self Concept and Delinquency*, Nashvill : Counselor Recordings and Tests, 1968.
- Glueck, Eleanor and Sheldon.. *Physique and Delinquency*, Harper & Row, New York, 1957.
- Gold, M.. *Status Forces in Delinquent Boys*, Ann Arbor, MI :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University of Michigan, 1963.
- Gold, M.. "Self-esteem and Delinquent Behavior : A Theory of Alternative Schools", *Crime Delinquency Literature*, 1978.
- Hewitt, J. p.. *Social Stratification and Deviant Behavior*, New York : Random House, 1970.
- Hewitt, Lester E. and Jenkins, Richard 1.. *Fundamental Patterns of Maladjustment*, State Printer, Springfield, I 11., 1970.
- Hindelang, M. J.. "Causes of Delinquency : A Partial Replication and Extension" *Social Problems*, 20, 1973.
- Hirschi, T..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CA : Univ. of California Press, 1969.
- Jenkins, C. D.. *A Composite Scale for Hostility*, Unpublished Materials. Boston University, 1968.
- Kaplan, H. B.. *Self Attitude and Deviant Behavior*, Pacific Palisades, CA : Goodyear Pubilsihing, 1975.
- Kaplan, H. B. *Deviant Behavior in Defense of self*, New York : Academic Press, 1980.
- Kohn, M.. "Social Class and Parental Valu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64, 1959.
- Kornhauser, R. R.. *Social Sources of Delinquency*, Chicago : The University Press, 1978.
- Krause, M. S.. "The Measurement of Transitory Anxiety", *Psychological Review*, 68, 1961.
- Krohn, M. D., & Massey, J. L.. "Social Control and Delinquent Behavior : An Examination of the Elements of the Social Bond", *The Sociological Quartery*, 21, 1980.
- Mckay, H. D.. "The neighborhood and child conduct",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the political and Social Sciencies*, 261, 1949.
- Merton, R. K.. "Social Structure and Anomi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 1938.
- Merton, R. K..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Glencoe, IL : Free Press, 1957.
- Parsons, Talcott.. *Social System*, Glencoe : Free Press, 1951.
- Quay, H. C.(ED).. *Handbook of Juvenile Delinquency*, New York : Wiley, 1987.
- Radloff L. S.. "The CES-D Scale :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1977.
- Reiss. A. J., Jr.. "Delinquency as the Failure of Personal and Social Control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6, 1951.
- Rosenberg, F. R., & Rosenberg, M.. "Self-estem and Delinquency", *Journal of Youth and*

- Adolescence*, 7, 1978.
- Shaffer, D. R..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Monterey, CA : Brooks/Cole, 1979.
- Shaw, C. R., & McKay, H. D.. *Juvenile Delinquency and Urban Areas*,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2.
- Simmel, Ernest.. "Incendialism", *In Searchlights on Deinquency*, K. R. Eissler, ed.,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Inc., New York, 1949.
- Simon. W., & Gagnon, J. H.. "The Anomie of Affluence : A Post Mertonian Concep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2, 1976.
- Simons, R. L., Miller, & Aigner, S.M.. "Contemporary Theories of Deviance and Female Delinquency",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17, 1980
- Smith, D.. "Sex and Deviance : an Assessment of Major Sociological Variables", *The Sociological Quarterly*, 20, 1979.
- Sutherland, A. L.. *Principles of Criminology*, (4thed.) Philadelphia, PA : J.B. Lippincott, 1947.
- William, J. R. & Gold, M.. "From Delinquent Behavior to Official Delinquency", *Social Problems*, 20, 1972.

<Summary>

Classification of Korean juvenile delinquent behavior and an analysis of the related factors

Jung-Ja Na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the Korean juvenile delinquencies and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the various types of delinquencies by using the integrate sociopsychological model.

The variables employed in the model were borrowed from several sociological theories and psychological theories of juvenile delinquency.

The survey was conducted in 1989 with the sample of 1,412 eleventh grade of students from the 26 high schools located in Seoul city, Chungbuk and Junbuk province in Korea.

The major findings were,

1. The Korean juvenile delinquent behaviors were classified into 7 types, "status", "violent", "sexual", "run away from home", "authority", "drug", and "theft" offenses by factor analysis.

2. The theory which best predicted Korean Juvenile delinquency was the social learning theory which says the delinquent bond is the prime important factors affecting all types of Korean Juvenile delinquencies.

3. The conventional bond(e.g., love/concern of parent for child, attachment to parents, success in school performance, attachment to

school) was the second most important factor affecting most types of the Korean juvenile delinquencies.

4. The third most important factor appeared to be the psychological distress(agression, anxiety, depression)and psychological variables related differently to the various types of delinquencies.

5. The socioeconomic status were positively related to "violent", "sexual", "run away from home", and negatively associated with "authority", "drug", and "theft" offenses.

6. Some variables such as psychological distress, father's education, mother's employment, number of siblings were related differently to the various types of delinquencies.

7. In addition to the theoretical variables gender was the very important factors in explaining most types of juvenile delinquencies.

8. The possible explanation for the small correlation between strain theory and delinquency is that the operational definition of strain may not be adequate in Korea because of the special nature of the Korean educational situation.

* Senior Researc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KIHASA)

To conclude, the delinquent behavior is inherently more complex than any single theory or group of theories can possibly anticipate. Conse-

quently, the integrate psychosociological approach was adequate to explain the great variety of delinquent behaviors.